

法을 具體的으로 나타내고 있어 역시 이 博의 用途를 暗示하는 資料가 될 것이다。

獅子는 古代西亞地方에 많이 棲息하였고 우리 나라에는 實在하지 않았으나 이미 三國時代에 中國을 通해서 彫刻藝術로 輸入된 것은 芬皇寺에서도 보는 바와 같다。古代 메소포다미아、小亞地方으로부터 印度 中國으로 東流한 것은 現存하는 遺品으로 알 수가 있으며 그것을 王宮門前의 守護神 또는 神의 屬性、聖獸로서 邪惡에 對決시킨 用途는 서로 共通되고 있다。中國에서도 六朝時代에는 佛臺座에 많이 使用되었으며 特히 咆哮하는 單獨像으로 수염과 갈기의 表現이 이 浮彫와 近似한 것은 龍門萬佛洞左石獅(六八〇)일 것이다。齊明帝興安陵의 石獅(四九八)에도 길고 流麗한 갈기가 있고 慶州發見、若干의 막새기와에도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다。그러나 이같은 獅子들은 丸彫、浮彫가 모두 類型化되 있다。獅子에 가까우면서도 多樣한 이 浮彫는 아마 佛臺座에 使用되었으리라고 짐작 되지만 斷言은 할 수가 없다。더 具體的인 用途와 眷屬이 밝혀지기 바란다。(높이 六·八㎝ 厚 九㎝ 上邊 三一·七㎝ 下邊 三四·三㎝)

慶州出土의 石製寺印

洪 思 俊

昨年 十二月 二十日에 徐壽龍의 好意로 入手된 滑石製「普光寺藏」銘이 있는 寺印은 同月中旬에 慶州의 小金剛山으로 이름있는 栢栗寺 入口 附近이며 現 陸軍病院 앞을 通過하는 水路工事에서 出土된 것이라 傳한다。普光寺院이었던지 或은 高麗時代 寺刹이었던지 未詳하며 또는 慶州以外 地域에 있던 寺院인지 文獻이나 또는 口傳에도 全然 찾아볼 수 없는 寺名이다。그러나 이 遺品이 慶州市內 龍江里에서 出土된 것만은 事實이라고 한다。

遺物은 形態가 印面이 平面으로 깍였으나 多少 縱으로 內曲하여졌고 印背에는 五指가 自由롭게 들어가게 縱으로 손잡이가 달린 楕圓에 가까운 外形이고 손잡이 中間에는 끈을 꿸 수 있게 小孔이 뚫려 있음을 보아서 걸어두고 常時 使用하였던 것을 짐작하게 된다。印面에는 兩行으로 字大 縱이 一寸九分——二寸一分 橫 一寸六分——二寸의 篆字體의 比較的 굵은 劃으로 陽刻되었으며 글씨도 불만하다。印面 글字를 右書하였음에서 찍어 보면 左書로 나타난다。이 寺印에서 注目되는 것은 寺印이 普通例이나 藏字를 字末에 부침이 特色이라 하겠다。



- 印面 長 四寸六分 印面 幅 三寸六分
- 印緣上下 四分——八分 印緣左右 二分——五分
- 印高(손잡이 까지) 二寸三分

加里浦 在銘 雙穴銃筒과 靑銅製容器

金 尙 翊

昨年七月 全南 莞島 長佐里에서 出土되어 國博에 收藏된 雙穴銃筒과 用